



2021 년의 마지막 달 선교편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페루의 장인성/에스더

선교사입니다.

2022 년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지난 8 월말에 안식년으로 미국을 거쳐 현재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요즈음 무척 추운데 저희는 오히려 페루에서 느끼지 못하는 추위여서인지 이런 추위가 반갑게 느껴집니다.

지난 2021 년 하반기에 저희가정과 사역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이야기

저희가 지난 8 월말에 안식년으로 미국 L.A 로 들어갈때 여러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페루를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COVID 로 미루었던 저의(에스더 선교사) 가슴에 혹 제거하는 수술과, 큰딸 조이스가 2020 년 말에 법적혼인신고만 하고 코비드로 인하여 결혼식을 미루고 있었기에 결혼식 예배를 드려야 했고, 마지막으로 막내 베키가 대학을 가야 하게되어 베키가 미국에서 살집과 여러가지 독립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워야 했습니다.

큰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가운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 주실지를 기대하며, 열어주시는대로 순종하자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뭐 다른 힘도 없었으니까요...

감사하게 막내 베키는 MK 들이 모여사는 집에 하숙을 하게되었습니다. 대학교도 집에서 멀지 않은 플러튼 칼리지를 다니게되었고, 커피숍에서 팻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문제는 자동차인데... 저희와 아주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장로님이 베키의 차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큰딸 조이스 결혼식에배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은혜로 잘 치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 많은 종들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베키를 잘 독립시키고 저의(에스더 선교사) 수술을 위해 10 월 말경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수술을 할 부산의 병원에서 처음부터 모든 검사를 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감사하게도 가슴의 혹이 아직 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암이 될수 있으니 빨리 수술을 하라고 하였지만 연말이라 수술 스케줄이 꽉 차서 자리가 없다고 하여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2 월 28 일에 빈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사실 벌써 4 년 동안 혹 때문에 신경이 늘 쓰였고 가끔 통증이 있으면 걱정했었는데 감사하게도 2 주전에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큰문제는 제가(에스더 선교사) 당뇨수치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 당장에 약을 복용해야 하고, 갑산성에도(저하증)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혹 하나 떼러 갔다가 혹을 여러개 달고 나온 기분입니다. 여러가지 약을 함께 복용을 해야하기에 입맛이 없고 헛구역질을 하는 상황이라 처음 몇주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억울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당뇨라니, 아니 왜? 왜 하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오랫동안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보이는 모든것이 그림의 떡이요 금지된 음식들입니다.

그동안 L.A 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했던 마음은 근방 잊어버리고, 기도 할수도 없고 말씀도 보기가 싫고 그저 힘없이 누워있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를 쓰담아 주시네요. 조금씩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파보니 육신의 큰 고통중에 계신 분들의 입장을 조금은 느낄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Term 을 위해 건강을 잘 챙기라는 주님의 싸인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코비드로 많은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느라 운동을 하지 않아 건강이 많이 약해진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우리가 바꿀수는 없지만, 주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때 우리는 주님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고싶은 사람들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지요. 특히 딱나에서 함께 지냈던 코이카 청년들, 옛 친구들, 신앙의 동역자분들과 귀한 교제를 가질수 있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요번에는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 많은 위로와 내 안에 해결되지않았던 아픔과 분노를 인정하게 되었고, 화를 가볍게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저 누르려 했던것이 당시에는 저의 의지로는 잘 참는 것 같아 보였으나, 육신은 “나 정말 힘들고 아팠어” 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편하게 솔직히 드러낼수 없는 아픔들을 이번에 4 박 5 일간의 선교사 경력훈련을 통해 오픈할수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자리를 통해 선교사들의 아픔, 부끄러움, 두려움, 연약함을 서로가 나눌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Mision Shammah 리더들의 침례식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이 막히는 가운데 지난 8 년의 사역들을 되돌아 보면서 모든것이 닫히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사역이 모두 헛된것 같은 마음때문에 많이 낙심도 되고 힘들었었는데 Mision Shammah 리더들이 스스로 침례를 받기로 결단하며 그들의 삶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했던 사역들이 헛된것이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새 힘을 주셨습니다.

코이카단원이었던 지혜자매의 세례식



한가지 더 반가운 소식은 코이카단원으로 페루의 딱나에서 저희들과 3 년간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지혜자매가 한국에서 교회에 잘 정착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12 월에 세례를 받기에 함께 세례식에 참석하여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갈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16-17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세계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해 2022년에는 우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장인성/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 1: 안식년동안 영적, 육적으로 재충전 받고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될수 있도록 (당뇨,콜레스테롤, 갑상선)
- 2: 매일 성경을 읽기를 잘 할수있게
- 3: 2 월달에 성경공부를 온라인으로 가르치는데 성령님이 인도해주시길
- 4: 큰 딸 조이스 아기 (그레이슨)를 2 월에 잘 순산하도록
- 5: 샬롬과 조이스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 6: 샬롬이 좋은 직장 생기도록
- 7: 베키가 1 월부터 대학교 시작하는데 공부와 일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